

한국산업단지공단 첫 4차 산업혁명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은 한양대학교와 공동으로 11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산업단지의 미래 비전을 창출하기 위한 첫 4차 산업혁명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파케 부총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창환 실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본 행사에는 국내외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4개 분과에서 2개의 주제로 진행된 본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 세션에서는 'Industry 4.0'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독일과 일본의 주요 사례를 해당국 전문가가 소개하고, 대표 스마트 팩토리 기업인 독일 지멘스의 사례를 공

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업혁신 분과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CEO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KICOX 글로벌 선도기업은 산업단지 50년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말한다. 현재 180개사가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김형중 고려대 교수), 4차 산업혁명과 공공행정 패러다임의 혁신 그리고 정책과제(남창우 경북대 교수), 4차 산업혁명 R&D(연구개발) 지원의 파급효과 분석(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행사를 주관한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액의 70%, 수출의 80%를 담당하는 산업단지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단지가 중심이 되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정보통신기술)·IoT(사물인터넷)·Big Data(빅 데이터) 관련 신기술 교육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처음 개최한 4차 산업혁명 국제세미나가 산업단지의 미래 제조업 혁신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